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사활전 전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클립는 순서

1. 총괄
2. APEC 정상회의 유치 경주뿐
3. 개최지 결정, 정치 잣대 '안돼'
4. 세계적 관광은 경주로 통한다
5. 경제 파급 효과...경주가 잘산다
6. 맺는말

경주는 지금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유치에 사활전 전쟁을 하고있다.

APEC 정상회의는 20년만에 한국에서 열린다. 개최지는 오는 45월께 외교부가 발표한다. 경주는 모든 준비를 끝냈다.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개최지는 경주뿐이라는 구조를 갖고 25만여명의 경주시민이 뚝뚝물처럼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APEC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6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광역정보는 경주 유치 타당성과 경주만이 유치해야 하는 이유를 연재물로 산다.

2030년 엑스포(EXPO·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이후 국민들의 시선은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에 쏠리고 있다.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은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현재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총 21개 국가가 참여, 연례회의를 한다.

APEC 회담은 1989년 각료회의로 출범했다. 1993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로 격상된 후 2022년까지 총 20회 개최됐다. 매년 11월 회원 각국을 돌면서 열리고 있는 비공식 회의다.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과 비전,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공식 명칭은 APEC 경제

제지도자회의다. 약칭은 영문 이니셜을 딴 AELM(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정상 회의의 목적은 정상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의 기록은 없다. 정상들은 해당 시기의 APEC 회원국 간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협력 강화, 세계 차원의 정치·경제적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APEC의 고위관리회의, 무역투자위원회(CTI) 회의 등에서는 논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 결과는 공동 선언문 형식으로 발표된다.

APEC 21개 회원국 가운데 타이완과 홍콩은 각료급 인사, 나머지 국가는 정상이 참가한다. 회의에는 APEC 자체가 느슨한 포럼 형태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배석자 없이 정상들만 참석하고, 공식 의제도 없다. 회원국 대표나 수행원들은 회의 상황을 화면으로만 지켜볼 수 있다.

2005년 제13차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를 주제로 열렸다. 이 회의에선 공동 선언문 형식을 빌려 자유로운 무역의 진전을 강조한 부산 선언이 발표됐다.

APEC은 한태평양 국가들이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국제 기구로, 1989년 11월 5일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12개 나라가 모여 결성했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인 2025년 11월 한국에서 또 열린다. 대한민국은 1991년 서울에서 각료회의를, 2005년 부산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다. 두 번째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으로 △무역과 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3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놓고 경주·부산·인천·제주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하고 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다. APEC 정상회의 유치에서 사활을 거는 것은 자신들의 지역을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경제 효과도 한몫한다. 김성용 기자



봄의 전령 홍매화가 4월 양산에 통도사에 활짝 폈다. (사진=이상운 기자)

총선 경선 막바지 불·탈법 선거운동도 넘어

구미를 경선 과열 혼탁 눈살 찌푸리는 주민들

22대 총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자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이 도를 넘고 있다.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할 내용이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공표하는 등 경선판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경북 정가에 따르면 전직 용산출신 인사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 구미를 지역 선거구의 경우 주민 자치위원회 특검 여론조사를 사칭한 홍보물을 버젓이 SNS에 공시한 후보도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4·10 총선 예비 후보자 A씨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구미를 지역 주민 자치위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 자치 위원으로 활동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예비 후보자 A씨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 자치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공직선거법도 '통·리반의 장 및 주민 자치위원의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A씨 등 위법행위 3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 언론에 보도된 구미를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 설문 대상 등을 조작해 이를 바탕으로 언론과 SNS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를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인 B씨와 C씨 등은 언론에 보도된 선거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도 문항이 아

닌 문항의 결과값을 마치 예비 후보자의 지지율인 것처럼 카드 뉴스를 제작해 SNS에 게시해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가에서는 구미를 선거가 혼탁해지는 배경으로,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을 지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역 기반이 약한 후보 측이 무리하게 선거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필연적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지지여론이 부족함에도 이를 되돌리기 위해 탈·불법 선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주민은 "법을 어겨서라도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선거 운동에는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해당 후보가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된다. 법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진 기자

너무나 더딘 국민의힘 TK 공천...

아직도 7곳 미확정 공천 최대한 늦춰 유권자 선택권 무시

4.10 총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대구경북(TK)에서 아직도 7곳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일(21일)을 보름

남짓 앞두고 있다.

4일 현재 TK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안동·예천(현역 김형동), 구미(현역 김영식), 대구의 동갑(현역 류성길), 북갑(현역 양금희), 달서갑(현역 홍석준)으로 경선 또는 단수 추천 등 공천 방식이 전례하지 않은 보류 상태다.

군위·동구(현역 강대식)는 7-8일 경선을 벌이지만 후보자가 많아 결선을 추가로

치러야 할 전망이어서 공천 확정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상·청송·영덕·울진 지역에서는 영주·영양·봉화에서 지역구를 옮긴 현역 박형수 의원과 김재현 전 의원이 양자 경선을 벌인다.

이처럼 국민의힘 공천이 더디게 진행되자 TK지역을 텃밭으로 인식해 공천을 최대한 늦추면서 유권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출마자들의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차단한다는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조미경 기자



단체장 일정



주낙영 경주시장은 5일 오후 농업인 회관에서 열리는 '농업대학 입학식'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5일 오전 별초동 에미지 어린이집에서 열리는 '신규 개원 국공립 어린이집 방문'에 참석한다.

전공의 요지부동, 전임의도 이탈 우려

영남대병원 사직 130명 중 1명만 복귀한 것으로 확인

"사직서를 제출한 130명 전공의 중 1명이 복귀했습니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와 사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4일 경북대학병원. 전공의 193명(레지던트 147명, 인턴 46명) 가운데 17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곳이다. 전공의 복귀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복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에 대한 통계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아직 확인된 복귀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복귀한 전공의는 보이지 않았고 수술실 가동률과 입원·외래 환자가 축소됨에 따라 고요함은 여전했다. 평소 수술 일정이 가득 차 보호자로 불렀던 대기실도 여전히 한산한 모습이다.

같은 날 오전 영남대병원 전공의 161명(레지던트 119명, 인턴 42명) 가운데 130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곳이다. 해당 병원에선 지난달 29일 이후 4시간 기준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 130명 중 1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태용 기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정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3월 5일 화요일 2



전문건설협 대구시회, 동구에 장학금 5백만원 기탁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는 4일, (재)대구 동구교육재단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간의 상

호협력력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과 기술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김석 대표는 (재)대구동구교육재단 이사로서 책임 중이며,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에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윤석준 (재)대구동구교육재단 이사장은 "기탁금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북성로 중구의 문화관광 중심지역 우뚝

희망 중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 북성로 문화예술 활동사업공모

중구청에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이 한창이다.

희망중구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이어 북성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들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중구의 정책 운영에 적극적 반영한다. 중구 발전에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희망중구 정책아이디어 공모

이달 29일까지 '2024년 희망중구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한다.

공모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접수된 주민의견은 중구의 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된다.

참가는 중구 구정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분야는 △일자리 △청년 정책 △복지 △관광 등 구정 발전 및 주민 생활에 기여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 기간은 4~29일까지로 온라인(국민신문고, 중구청 홈페이지)의 주민 제안,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혁신사업홍보실(053-661-2465)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는 오는 5월 1·2차 심사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주민편의 증진도, 노력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2명(각 50만원), 장려 3명(각 30만원)을 선정하고, 채택 여부를 발표한다.

■ 북성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공모

중구청과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오는 15일까지 북성로 문화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공모사업은 북성로의 문화예술을 활용해 북성로의 문화 자산을 홍보하고, 북성로 지역의 문화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대구 중구에 소재지를 둔 민간 문화예술 단체 및 기업으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12개 내외 단체를 선정해 단체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4~15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fctls1541@djcf.or.kr)로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요강 및 지원서는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북성로문화플랫폼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북성로 문화지원팀(053-252-8951)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문화예술인들이 북성로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북성로가 새로운 문화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현몽을 새마을회 '꽃피는 거리 만들기' 군현몽을 새마을회는 최근 현몽천 일대에서 '꽃피는 거리만들기 운동'을 실시했다. (사진=달성군 제공)

달성군 '데이터 분야 평가' 우수기관 선정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2년 연속으로 우수기관 선정

달성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앞으로도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하여 데이터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운영 전반에 대한 관

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분야 등 16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81.4점, 광역자치체는 73.7점, 기초자치단체 58.8점의 평균점수를 기록했다. 달성군은 기초자치단체 평균점수를 크게 웃도는 82.42점을 획득하여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군은 개방, 활용, 품질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특히 신규 데이터 발굴과 활용을 위한 타 지자체와 간담회 개최, 협업과제 발굴 등 데이터 개방·활용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초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관리체계, 공동활용, 데이터분석, 역량문화 4개 영역의 12개 지표를 토대로 평가한다.

평가에서 달성군은 공동활용 영역 중 지정 및 자율등록 데이터 등록이행률,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도, 역량문화영역의 데이터 교육참여실적, 활성화문화조성 추진시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총 82개 군 중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단 3개의 기관뿐이며, 달성군은 우수한 성적으로 이 3개의 기관 중 하나로 포함됐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구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주민공청회

5일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 가능

수성구는 구의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연다.

2024년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오는 5일 오후 3시 범어도서관 지하 1층 김관용·박수년홀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 월 150만원 이내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수렴이다.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통보한다.

의정 활동비는 2003년부터 광역의원 월 150만원, 기초의원 월 110만원으로 동결돼 왔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상한액은 광역의원은 200만원, 기초의원은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www.dgy.co.kr 전자우편dgynews@dgy.com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예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시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외파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동구교육재단 개청...본격 업무 돌입

대구동구교육재단이 4일 신청사를 개청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신천1·2동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는 동구교육재단 신청사는 지상 2층 규모로 사무실, 상담실, 다목적실 등이 갖춰졌다. 대구지하철 1호선 신천역

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다.

동구 최대 역점사업인 교육재단 설립은 2022년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지난 1월1일 출범했다. 조직은 1국 1팀 5명으로 구성됐다.

전담 공무원 파견과 직원 신규 채용으로 전문

성이 강화됐다. 장학금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 2월 동구경영인협의회와 장학금 정기후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올해는 총 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장학금 모집은 이달부터 실시된다.

교육재단을 제2의 학교로 만들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학교 3학년 대상 대학생 학습멘토링 사업이 시작된다. 또 전제학년 대상 명문대 투어 및 진로체험사업도 운영된다.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상북도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항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강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계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야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야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경북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벨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4·환장·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용 펌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파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예천 호명참외 첫 출하...“아삭하고 당도 높아”

예천군 호명참외가 출하되기 시작했다. 이번 예 첫 출하된 호명참외는 ‘하니스타’로, 아삭한 식감과 우수한 당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품종이다. 지난해 11월 말에 파종해 12월 초

정식했다. 출하가격은 10kg 한 상자당 14만 원으로 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을 통해 거래됐다. 예천군 호명참외 작목반은 20가구로 구성돼 10ha를 재배하고 있다. 예천은 황토점질과 풍부한

한 일조량으로 참외 생육에 적합하다. 우종규 호명참외작목반 회장은 “하니스타는 식감이 아삭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이라며 “앞으로도 작목반의 재배 기술과 정성을 더해 소비자에게 더 맛있는 참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농업·농촌! 도약하는 농촌지도자!

2024년 2월 26일(월) 경상북도농업인회관 3층강당

경북농업기술원, Voice Of Child [福] 복! 소리 나게

백들이 복(福)주머니 전달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경북농업기술원 직원들이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힘을 쏟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세계에서도 걱정하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2명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년 신년 업무보고부터 저출생 극복 정책을 발표, 저출생 극복 TF를 출범

했다. 경북농업기술원도 저출생 전생선포식과 함께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과의 전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저출생 극복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면 나비효과처럼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며 “농업기술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적극 발굴해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농기원은 직장 내부에서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활성화하고, 임신부의 편안하고 쾌적한 근무 공간 제공을 위해 임신부 쉼터 리모델링 등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간다.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백들이 복(福, VOC) 주머니’를 백일과 돌 선물로 전달해 출산을 함께 기뻐하고, 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등 육아 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백들이 복(福, Voice Of Child) 주머니는 백

일과 첫돌 맛이 기저귀, 부모 영양제 등 자녀와 부모에게 필요한 물품을 담은 축하 선물 바구니다.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경북도의 계획에 따라 새마을 운동의 주역이었던 농촌지도자자연합회와 생활개선회를 비롯해 청년농업인 학습단체인 4-H, 정보화농업인 등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4단체 3만 3천 명 회원과 함께 저출생 극복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청

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에 자녀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자녀가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경제적인 안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도 자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한다. 저출생의 원인 중 과도한 경쟁,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고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치유농업과 행복한 가족 교육(가칭)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김성용 기자

의사 존경받는 이유 생명 살리는 고귀한 직종...

홍준표 “거리 나가는 의사보다 수술실 지키는게 진정한 의사”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4일 “거리로 뛰쳐나가는 의사보다 수술실을 지키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일부 전공의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존경받는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직종이기 때문이다”며 “정부도 좀 더 세밀히 의료개혁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사가 환자를 기다려야 환자는 의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는 메디컬 드라마 ‘고스트닥터’의 대사를 언급하며 “이 드라마는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 나가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는 드라마”라며 “의사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 바람직한 의사상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에만 몰리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통적인 필수 의료과를 기피하는 오늘의 세태를 통렬히 비판하는 장면들도 감흥이 컸다”고 했다.

“새 친구와 벚꽃놀이 갈래요” 대구 초등학교 입학식

한실초 신입생 103명 입학식 학부모 “행복한 학교생활 하길”

전국 초·중·고 입학식이 열린 4일 오전 대구 달서구 한실초등학교, 103명의 1학년 신입생(남 44, 여 59명)이 입학하는 곳이다. 강당 내부는 ‘이제 우리 봄! 시작해 봄!’ 입학식에 참여한 신입생, 학부모, 교사 등으로 북적였다. 신입생들은 각자의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아 새로운 친구의 얼굴을 확인했다. 새로 산 책가방과 신발을 관심 보이는 아이, 긴장한 표정으로 입을 꼭 다문 아이, 옆 친구에게 쉴 새 없이 질문하는 아이 등 모습은 다양했다. 유서우(8)군은 “새 친구 만날 생각에 기대되고 기분 좋다”며 “좋은 친구 사귀어 벚꽃놀이도 함께 가고 싶다”고 웃음지었다. 입학식은 국민의례, 선물 증정식, 담임 선생님 소개, 교장 선생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됐다. 장경희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는 마음껏 뛰놀고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다”며 “자기 일 스스로 하기,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기, 선생님 말씀 잘 듣기, 음식 골고루 먹기 등 5가지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기쁨을 잘 따르기를 바란다”며 “쉬운 일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일 오전 대구 달서구 대구한실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자녀의 입학식을 지켜보던 학부모들은 아이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진심으로 바랐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 유정민(36)씨는 “보육시설만 이용하던 딸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지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김지영(39·여)씨는 “입학을 기념해 아침에 딸에게 편지를 썼더니 부끄러워했다”며 “엄마, 아빠가 항상 곁에 있으니 학교생활 당당하게 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학하는 손자의 사진을 열심히 찍던 할아버지 도 눈에 띄었다. 한기용(66)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의 첫 입학식에 괜히 설렌다”며 “지금까지 잘 자라온 아이에게 고맙고 항상 응원하겠다”고 했다. 입학식을 마친 아이들은 각 담임선생님의 인사를 받아 교실로 이동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어린이는 1만 6966명이다. 이는 지난해 1만 8889명에 비해 10.2% 감소했다. 황태용 기자

대구 산업생산 9개월 만에 반등...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 소비 건설수주 다시 부진

대구의 산업생산이 9개월 만에 반등한 반면 소비와 건설수주는 다시 부진에 빠졌다. 4일 동북지방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1월 대구의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6.6% 늘어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광학(26.4%), 고무·플라스틱(22.4%), 자동차(14.8%)가 상승을 주도했다. 건설 경기의 ‘바로미터’인 1월 건설수주액은 750억 원으로 전년 동월(1371억 원) 대비 45.3% 줄어 한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신규 주택, 상·하수도, 관공서 발주물량 감소로 공공부문은 47.5%, 사무실과 신규 및 재개발주택 부진에 따라 민간부문은 43.5% 각각 감소했다. 소비동향을 엿볼 수 있는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8.0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 감소해 3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각각 7.3%, 13% 감소했으며 상품군별로는 음식료품, 의복, 신발·가방, 화장품, 가전제품, 오락·취미·경기용품의 소비가 줄었다. 경북의 1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해 한달 만에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69.6%), 1차금속(15.1%), 자동차(13.6%)가 상승을 주도했다. 건설수주액은 4023억 원으로 전년 동월(4445억 원) 대비 9.5% 줄어 한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재건축주택, 공장·창고, 기계설치 등 민간부문 수주가 69.9% 감소한 게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9.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9% 줄어 두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대형마트 판매가 27.4% 감소했으며 상품군별로 의료식품, 기타상품, 화장품,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신발·가방, 가전제품의 소비가 줄었다. 조여은 기자

경북교육청, 교원 활동 침해에 ‘모든 지원’

이달부터 교원안심공제 시행

경북교육청이 이달부터 교원안심공제 계약에 따라 교원안심공제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체를 지원하며 교육활동 침해 교원은 소속 교육(지원)청과 경북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 가입 대상은 도내 모든 교원으로 교육청이 일괄 가입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맞춤형 컨설팅·분쟁 조정 지원 서비스(변호사 및 법률전문가 지원), 교육활동 배상책임 지원(법률상 손해배상금 최대 2억 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경쟁 조사 때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 이내, 민형사 소송비 심급당 660만 원

이내), 교육활동상해 치료비 지원(1사고 당 최대 200만 원), 교육활동 손해(물품) 비용 지원(1사고 당 최대 100만 원), 교원 긴급 경로 서비스(1사고 당 최대 20일)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 사업 외에도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원안심공제 사업으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신학기 맞아 식재료 공급업체 84곳 합동점검

경주시가 봄 신학기를 맞아 지역 식재료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경주시, 대구지방식약청,

경북도 교육청과 함께 이달 22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84곳으로 지역 학교, 유치원 식재료 공급업체다.

합동 점검반은 △식재료 보관상태 및 조리 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조리장내 위생-청결 관리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운송차량 온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살핀다.

드론 산업 상용화 지원 나선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박차

드론 콘텐츠 제작 사업 통해 관광산업 트렌드 선도 나서

2회 연속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된 경주시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2021년과 2023년 2회 연속 지

정된데 이어 3회 지정 도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도심 내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일종의 규제 완화 특구다. 경주시의 드론특구는 △남산지구(0.26km) 내 남면 월암재 인근 △월성지구(0.57km) 인왕동 석빙고 인근 △대릉원지구(0.81km) 황남동 대릉원

인근 △산성지구(0.90km) 천군동 진평재 인근 등 4곳이다. 특구 지정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5년 6월 까지 총 4년간이다. 현재 경주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실증사업 참여 업체와 함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의 드론특구 추진 방향은 문화재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 건축물 안전 진단 시스

템 등 드론표준도시 구현이 핵심 골자다. 또한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드론으로 한국형 3D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공간 자체 콘텐츠 생성 및 시제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야간 군집 드론 아트쇼 콘텐츠 제작 및 실증사업에도 나서 미래 지향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6월에 있을 드

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만의 특색 있는 드론 서비스 개발로 관광산업 트렌드 선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드론을 활용한 과학행정과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선도를 선도하는 드론 표준도시 경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농철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시작

캄보디아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5개월 간 유치

경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외국인(캄보디아)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 중 1차로 10명이 지난달 29일 입국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가에 배치된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사업대상자(농협)는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을 체결해 필요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숙식과 편의시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단기 고용도 가능해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절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범죄예방·이탈방지 사전교육 등을 거쳐 서라벌대 기숙사에 숙소에

마련하고, 농가에 일손이 필요할 시 노동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계절근로자들은 5개월 간의 비자를 받아 오는 7월 말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 토마토, 딸기, 멜론, 부추 등 비닐하우스 농가 등에서 요청할 시 곧바로 투입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일손이 필요한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계절근로자 운영·관리에 힘써 전국 우수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반려식물 치료센터 본격 운영

경주 지역 소재 화원 10곳 반려식물치료센터로 지정

경주시가 병들거나 시든 화초를 진단, 치료해주고 관리 요령도 알려주는 '반려식물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 경주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화원 10곳을 반려식물치료센터로 지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반려식물이 시들거나 병해충이 생겨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인근 치료센터로 방문하면 무료 분갈이, 물관리, 병해충 관리 등 식물 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반려식물은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뜻한다. 앞서 시는 2022년부터 반려식물 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난 2년간 2200건의 반려식물 치료 실적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는 치료센터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공동주택단지로 직접 찾아가는 일명 '찾아가는 반려식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반려식물 치료에 필요할 때는 사전 전화상담 및 예약이 필요하며, 분갈이가 필요할 땐 분갈이 할 새 화분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경주 현곡면 주민자치센터 새단장

센터 프로그램 3월부터 개강

경주현곡면 주민자치센터가 탈바꿈됐다. 시는 현곡면복지회관 내 소재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달 28일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찾아가는 시간강좌회 주민건의사항중 하나다.

그간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해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층 문화강좌실, 소회의실, 작은도서관을 다목적실과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2층 헬스장과 다목적실은 헬스장으로 확장해 회원들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11대 헬스기구도 추가 구입했다. 새로 단장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3월부터 헬스, 기타, 요가, 춤바, 스포츠&라인댄스, 민화 및 색소폰 등 7가지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한다. 최정호 현곡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새롭게 재단생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경주 화랑마을 지역 청년센터와 업무협약

경주 화랑마을과 지역 청년센터가 청소년 및 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두 기관은 △기관 상호간 시설과 프로그램 사

업 홍보·운영 협조 △협력사업 발굴·시행 △상호 현안사항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화랑마을은 청년센터로부터 경주시 10대 뉴브랜드 사업인 청년화랑캠프 운영과 인적·물적 지원 지원, 청년센터 내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영덕대게축제 '8만 인파' 동해안 겨울축제 우뚝

착한 가격·안전·친환경 돋보여 전국 축제 트렌드 지수 2위에

는 성인과 어린이 체협장을 구분해 체협장을 대폭 확장한 점이 큰 호평을 얻어 실시 횟수를 2배 이상 늘렸음에도 매시간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내부 체험과 지역 관광지방문을 함께 유도해 축제의 지역 기여도를 높였으며, 축제 정보 안내와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한 실시간 방송 시스템은 축제의 편의성을 개선해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토록 권고하고, 내년 축제부터는 이를 전면 확대해 친환경축제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5일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각 읍·면을 방문해 각종 불법 소각 행위 근절 등 홍보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5일 오후 2시에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영양' 별빛아카데미에 참석한다.



청송군 지체장애인협회 이웃돕기 성금 기부

청송군 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달 28일 이웃돕기 성금 80만 원을 청송군에 기부했다.

강의수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마련된 성금이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올해 사업 설명회 개최

영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달 29일 종합복지회관에서 관내 사회보장 관련 시설·기관·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4년 신규 및 주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자원을 2개월 간 체계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지역 내 복지서비스 공급역량과 공급량을 진단했고, 조사로 끝내지 않고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이해와 민·관 연대감 형성을 위해 함께 공유하고자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권윤홍 기자

경북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영덕대게축제가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강구 삼사해상공원에서 열렸다.

이 밖에도 인기 프로그램인 '대게 신고 달리기',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미니 축구게임'을 비롯해 대게 줄당기기, 대게탈 축구 등도 표를 구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축제엔 식품 전문 유통기업인 CJ엔디원과 콜라보로 '게살 핑거푸드 시식회'가 펼쳐져 게살 차우더 수프를 비롯한 총 4종의 메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레시피로 매일 600인분 이상 무료로 제공돼 축제 참여자들을 미식의 세계로 초대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올해는 무엇보다 축제를 방문하는 누구나 영덕대게를 맛보고 갈 수 있도록 힘썼다"며 "영덕은 계절마다 맛있는 특산물이 나오고, 자연도 아름다운 곳이니 앞으로 더 자주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영덕대게축제는 '전년의 맛, 모두의 맛'을 슬로건으로 축제 참여자 누구나 영덕대게의 특별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8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성황을 이뤘다.

'영덕대게 맛 체험'도 일반적인 대게집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대게 요리를 선보였으며, 각 읍면 먹거리 부스 역시 대게라면, 대게국수, 대게육수떡, 대게과전, 대게비빔밥 등 마을별로 특화된 음식을 내내 방문객들의 취향을 저격했다.

이를 위해 영덕군과 축제추진위는 영덕경찰서, 영덕소방서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와 화재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사고 걱정 없는 축제를 실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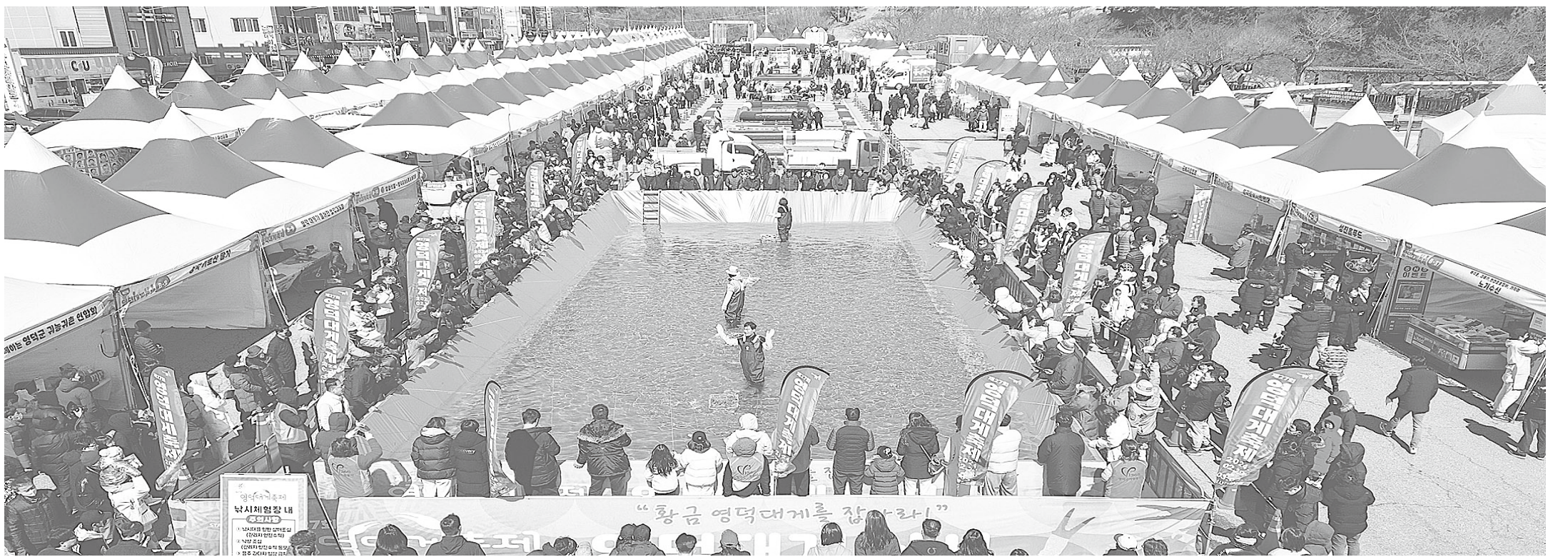
한편, 빅데이터를 분석해 트렌드 지수를 발표하는 랭키파이는 올해 2월 2주차 전국 축제 트렌드 순위에서 영덕대게축제를 2위로 꼽은 바 있다. 해당 지표의 10위권 안에는 진해군항제 등 국내 굴지의 축제들이 포함됐다.

다만, 축제 첫날 비와 추위로 인해 대게원조마을인 차유마을에서의 안전지원체가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졌고 개막을 여는 대게거리 퍼레이드가 취소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후 새롭게 마련된 본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등이 축제장을 풍성하게 채워 방문객들을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외 올해 처음 도입한 '스텝 투어'는 축제장

또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신고 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축제 14일 전 대표 먹거리 메뉴와 가격을 공시하고 축제 현장의 모든 부스에 판매 품목 가격을 기재한 안내장을 비치해 비용이 약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했다.

조여은 기자



청송군,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비 지원

8억3000만원 예산 확보 건축물 철거·처리비 지원

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초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이 해당되며, 해당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하여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 가능하다.



이시균 청도교육청 교육장 취임

청도교육지원청 제33대 이시균(사진) 교육장이 4일 취임 후 첫 업무를 시작했다.

망을 키워주고, 교직원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단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에 헌신해 왔다.

청송군은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로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일반가구는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우선지원하고,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 면적까지 전액 지원, 소규모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비용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신임 이시균 교육장은 경주 출신으로 1989년 울릉중학교에서 첫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감, 교장, 연구관 등의 직위를 두루 거치며,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교직원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단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에 헌신해 왔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8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5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 사업비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시균 교육장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또한 이 교육장은 풍부한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직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행정력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청도지역 교육현안 문제를 지역공동체와 소통하여 해결해 나갈 것임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조여은 기자

지난 달 26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오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 희망자들은 건축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

영양군은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정신을 계승·발전하고, 선열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

식을 청기면 만미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도창 군수를 비롯한 김석현 군의회의장과 군의원 김주성 광복회지회장, 보훈단체와 독립유공후손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군 3·1운동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3·1절 노래제창 등의 순으로 기념식을 가졌다. 권윤홍 기자

새 희망 / 새 울릉!

독도 명예주민증
가지고 계신가요?
독도의 주민인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울릉군 울릉도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최기문 영천시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열리는 (사)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해 입학생들을 축하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기원한다.



영천 금호민속축제 성료

지난달 1일 제30회 영천 금호민속축제 행사가 금호농협 하나로마트 전경에서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올해 30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금호읍청년회가 주최·주관하고 금호읍행정복지센터, 금호농협, 금호읍이장협의회 등 지역 내 기관·단체와 우수기업들이 후원했으며, 율농이와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통해 주민들이 화합하고 한 해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율농이 대회는 단체전(마을별, 기관단체별)과 개인전으로 나눠 경기가 진행됐으며, 마을별 단체전에서는 남성리가 1위를, 기관단체전에서는 원제작목반이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윤동희 금호읍청년회장은 "행사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언제나 솔선수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청년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영주시, 개학 맞아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영주시는 개학을 맞아 4일 영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서 선진교통문화 확산과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영주경찰서, 모범운전자연합회 영주지회 회원 등 80여 명이 참여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을 알리는 등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펼쳤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녹색어린이회, 모범운전자연합회, 영주경찰서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연중 진행한다.

또한 지역 12개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 지킴이 30명을 배치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성기 기자

의성군,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 착공... 2026년 준공 목표

의성군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의 터전이 될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가 2월 말 착공에 들어갔다.

군비 총 422억원이 투입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의성읍 철파리 일원에 조성되는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는 225,090㎡(약 7만평) 규모로 의성군의 신성장 산업인 '세포배양산업'을 중심

로 그와 연관된 의약품과 바이오식품 제조업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집약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2021년 1월 경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이후 주민설명회와 부지 협의취득 등 행정절차를 끝낸 군은 지난달 28일 첫 삽을 떴다.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의

성군은 연간 549억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며, 1134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주승 의성군수는 "미래는 생명과학의 시대인 만큼 의성군은 바이오산업의 원천소재인 세

포배양산업을 특화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 왔다"며 "작년 세포배양 산업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금년 10월 세포배양배지 생산공장이, 또 2025년에는 산업인력들을 위한 워라벨 복합문화센터 건립, 2026년 산업단지준공을 계획으로 세포배양산업 허브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봉화군, 동절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봉화군은 전국적으로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감소하고, 철새 북상 시작에 따른 개체수 감소 등 위험도 감소에 따라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지난달 29일자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다만, 군은 이번 동절기 AI 발생지역(경기·충남·전남·전북·경북)에 포함되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강화된 방역체계를 3월 말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8건 등 방역조치들도 이날 말까지 연장됐다.

아울러 군에서는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비상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소소를 이날 말까지 24시간 운영한다. 축협 공동방제단과 군 방역차량 5대를 동원해 도촌리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 실시, 가금농장 예방과 점검 등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군 육용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올해 2월 8일 충남 아산시 육용오리농장 발생까지 전국적으로 13개 시군 31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AI 관련 행정명령과 공고가 해제되는 3월 말까지 가금농장에서는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성기 기자



2025년도 국·도비 및 공모사업 보고회

일시 : 2024. 3. 4.(월) 9:30 장소 : 우록실

고령군, 국·도비 예산확보에 선제 대응

'내년 국·도비·공모사업 보고회' 개최

고령군은 4일 군청 우록실에서 이남철 군수 주재로 부군수 및 간부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국·도비 및 공모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중앙정부 및 경북도의 정책과 민선8기 군정방향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지역에

꼭 필요한 국·도비 예산의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고령군 교육발전 시범특구 지정 100억 △가야고보군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건립사업 200억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250억 △후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00억 △쌍림 안림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

업 170억 △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 230억 등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가 절실하다"며 "고령군 실정에 맞는 국·도비 및 공모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영주시보건소·노인복지관 어르신 건강증진 '맞손'

비만과 만성질환 어르신 대상

4~11월 '스마트 헬스케어' 운영

스마트밴드 측정 건강관리 서비스

영주시보건소와 영주시노인복지관이 협력해 비만과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스마트 헬스케어사업'을 운영한다.

스마트헬스케어사업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만관리교육 및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4월 한 달은 자체강사 및 외부강사를 활용 주 1회(화요일) 노인복지관 내에서 올바른 걷기와 식습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5월부터 11월까지는 관철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관내 실내수영장 및 헬스장에서 주 2

회 수준·근력운동을 노인복지관과 함께 제공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스마트밴드를 착용해 다양한 생체신호와 활동량을 측정하고 시 보건소는 이를 기반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복지관 및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양 기관이 함께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행복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으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은 2019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두 기관은 이번 사업을 위해 영주체력인증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2일까지 사업에 신청한 어르신들의 사전검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노인복지관(☎054-632-9100)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기 기자

영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전 연령' 확대,

보증료 최대 30만원

영주시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주거안정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저소득층만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해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신청 자격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야하고,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신청후부는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경북 청년e플랫폼(https://gbyouth.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최대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성기 기자

영천시 청년행복 가이드북 책자 발간

일자리·창업·주거·복지 지원

분야별 체계적 사업 소개



영천시는 2024년 청년 대상 지원사업을 한 권에 담은 '2024 영천시 청년행복 가이드북'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를 통해 흩어져 있는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일

자리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자산 형성 및 복지 지원 △대학생 지원 △군인 및 군장병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 △청년 공간 등 정책 분야별로 구분해 상세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또한 영천시가 추진하는 총 9개 분야의 청년 정책에 대한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 주요 정보를 자세히 수록해 지역 내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으며, 청년 공간 2개소(영천청년센터, 영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소개해 관

내 청년들이 청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영천시 청년행복 가이드북' 책자를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영천청년센터, 완산동에 새롭게 설립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청년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영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경제·청년)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영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있지만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을 놓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 지원사업 가이드북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라며 "책자를 활용해 청년들이 편리하게 청년 정책 정보를 얻고 필요한 정책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올해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사업(점포 리모델링 및 임차료 지원)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청년 창업의 거점지인 영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오는 4월부터 운영해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최은하 기자

봉화군, 동절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의성군은 의성마을 전과정 기계화를 추진하는 '발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농업(마을)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은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행 마늘재배의 △인력수급 불균형 △인건비 상승 △고령화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 등을 해결하고자 추진되었으며, 3월 5일 마늘생산자연연합회 등 관련 농업인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마늘기계 도입 및 임대, 경북대 발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 실

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의성군은 2023년부터 경북대학교와 컨소시엄으로 한지형 의성마을 맞춤형 기계화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실증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027년까지 기계화 표준재배모델 개발을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의성마을은 90년대부터 경운기를 이용한 파종과 수확으로 타지역 마늘 주산지보다 기계화에 앞섰으나, 두둑 폭이 넓어 트랙터형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해 해결책으로 이번 발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박재성 기자



안동 예안면,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

안동시 예안면은 본격적인 봄철 산불 예방 기간을 맞아 산불방지지를 위한 특수시책 운영을 비롯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안면은 야간 순찰조 편성·운영을 통해,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 퇴근으로 산불에 취약해지는 야간에 예안면 직원들이 순번제로 각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예안면 전 주민에게 예안면장 명의의 '산불방지 당부 서한문'을 발송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교량 등 주요 통행로에 산불 예방 깃발을 게첨해, 주민과 방문객의 경각심 제고 및 계도에 힘쓰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본격적인 봄철 산불 예방 기간을 맞아 산불 감시원 발대식을 거행하며 산불 예방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배용범 예안면장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예안면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당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실천의식 그리고 산불 감시원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전제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배면장은 "3~4월 집중 예방 기간 최선을 다해 산불을 예방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준길 기자



성주 선남면, 긍정마인드 민원인 응대 친절교육 실시

성주군 선남면은 지난달 29일, 민원과 소통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등 민원 응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을 대하면서 갖춰야 할 긍정마인드 함양 자세, 상냥한 미소로 인사하고 맞이하기, 친절히 안내하기 등 민원인과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결의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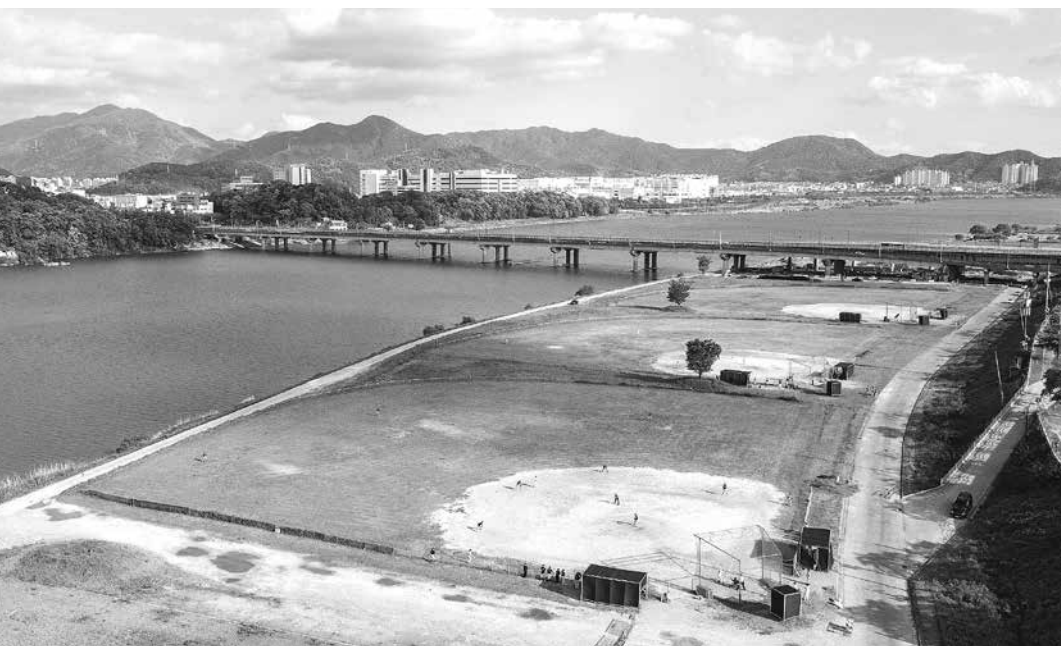
민원인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선남면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이날 교육을 통해 민원인을 대함에 있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민원인과 직원 상호간 미소와 웃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더욱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노경미 선남면장은 "친절의 기본은 직원 스스로 친절의 중요성을 알고 긍정마인드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또한 민원인이 면사무소를 내 집과 같이, 직원을 내 가족같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친절하게 민원업무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는 것이 민원 응대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구미산단 젓줄 낙동강,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강변 야구장



비산나룻길

수변공간 관광·체육 인프라 무미건조한 회색 도시 탈피 낭만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

구미시는 구미산업단지의 젓줄인 국가하천 낙동강 수변공간에 최근 다양한 관광·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낙동강은 구미시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5개의 구미국가산업단지에 풍부한 용수를 공급해 왔으며, 구미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보고이다.

구미는 민선 8기 출범 후 그동안 산업도시로 무미건조한 회색 도시 이미지를 탈피해 일상이 행복이 되는 낭만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시는 낙동강 주변을 주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파크골프장 6개소(216홀) 조성 △인조 잔디 야구장 조성 △비산나룻길 및 갈대 습지 탐방로 조성 △지산갯강 생태공원 명소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파크골프장 명소화로 주목

시는 하천변과 환경영향 규제에 의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관내 파크골프장을 전면 양성화

했다. 지난해 10월 양성화 절차 완료로 구미(63홀), 동락(36홀), 양포(18홀)의 3개 구장을 정상 운영해 왔고, 일부 미허가 된 선산(27홀), 도계(36홀), 해평(9홀) 구장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건의하는 등 협의를 진행했다.

파크골프장 전면 양성화가 완료되면 현재 조성 중인 옥성(9홀) 구장과 함께 전체 216홀로 도내에서 제일 많은 파크골프장을 보유하게 된다.

파크골프장에는 주중·주말을 가리지 않고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찾아 구미의 또 다른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 정규공인규격인조잔디야구장

구미대교 아래 낙동강변에 전국대회가 가능한 공인규격의 인조 잔디 야구장(3면)이 올 4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홈 구장 3면 야구장(3만 6000㎡ 규모)에 총사업비 40여억원을 투입해 인조 잔디, 웬스, 더그아웃, 본부석 등을 설치한다.

또, 올해 지산 낙동강 체육공원에 인조 잔디 야구장 1면을 추가로 조성해 총 4면의 정규 공인 규격의 야구장으로 각종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획이다. **■ 비산나룻길·갈대 습지 탐방로 조성**

지난 2월 개방한 낙동강 탐방로 '비산 나룻길'은 비산 나룻터에서 구미천 종점부까지 이어지는 길이 1km의 산책로로 총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상 보도교와 데크길로 해당 구간을 연결했다.

낙동강을 따라 조성된 '비산 나룻길'은 강가의 아름다운 풍경과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어 탐방객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낙동강과 구미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갈대 습지 1.3km 거리에 탐방로를 조성한다. 탐방로는 습지에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만큼 상세한 계획 수립과 하천정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에 개방될 예정이다.

■ 지산갯강 생태공원 명소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자리잡은 지산갯강생태공원은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연꽃, 겨울에는 천연기념물 큰고니의 도래 등 천혜의 자연을 시민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시는 벚꽃 시즌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

해 산책로 주변 빛나무 아래에 야간 조명등(LED) 250개를 설치했다.

민들레 조명과 초승달 조명 등 다양한 형태의 조명 설치로 특색있는 야간 경관을 연출해 방문객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전국 3대 천연기념물 큰고니를 상징하는 큰고니 부부 상징 조형물을 데크 광장에 설치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황토 맨발 길 체험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라 지산갯강생태공원 기존 산책로에 황토 맨발 길 시범 구간(L=250m)을 조성해 황토길, 황토뚝, 황토볼, 세죽장, 신발장도 설치했다.

올해는 황토 맨발 길을 추가로 연장(L=750m)해 다양한 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3월 중 무인카페도 오픈하며, 산책로 데크에 경관조명도 설치해 구미의 핫플레이스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서울한강의 수변공간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잘 조성돼 있으나, 지방은 각종 규제로 지긋지긋하지만 보는 하천으로 전락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중앙부처에 규제 완화 건의를 통해 낙동강을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는 작업을 차근차근히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은진 기자

포항시, 다국어 AI 앱으로 외국인 의료기관 진료 돕는다

증상 기록·가까운 병원 안내... 영어, 일본어 등 5개 언어 제공

포항시가 의사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정확한 증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도와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포항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의사회, 포항시약사회, 지역 내 5개 종합병원, 포항시가족센터, (주)메디마크와 인공지능(AI) 다국어 의료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우석 포항시의사회장, 김진 포항시약사회장, 지역 내 종합병원 관계자(포항의료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성모병원, 에스포항병원, 좋은선린병원), 안연희 포항시가족센터장, 이찬형 (주)메디마크 대표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다국어 의료연계

서비스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포항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이 10년간 1.5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민원하게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손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인공지능 다국어 의료연계 서비스 활성화와 △의료기관 연계 활용 고도화를 위한 자문 및 홍보 △포항시 글로벌 의료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 다국어 의료지원 서비스는 진료받기 전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자신의 모국어로 증상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를 분석해 증상과 연관된 질환은 물론 진료과목과 의료기관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

또한 증상의 요약본을 한국어로 제공해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과 외국인 환자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번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가 제공되며 서비스지원 언어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언어장벽을 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의료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 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로 다양한 국적의 시민들이 언어적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국어 주민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포항시에는 다문화가족 2200가, 외국인 8453명이 거주 중이며 이는 경북에서 세 번째로 높다.

문경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경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일 주말 체험으로 (주)에코테인먼트코리아와 연계하여 질 라인 체험 '문경의 숲 놀이터를 날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문경시 불정동에 위치한 (주)에코테인먼트코리아의 질라인은 9개의 코스로 하늘을 나는 짜릿한

을 즐겨볼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레저스포츠 시설이다.

문경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질라인 특별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직접 탐색해 보고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

서도 건강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주말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김모 학생은 "질라인을 타고 9개의 코스를 신나게 내려오면서 자연을 마음껏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보람찬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출품터'는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문경시에서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교과학습보충, 체험활동 등), 생활(차량, 급식, 면담 등), 특별운영(가족 체험, 캠프, 발표회 등) 등을 연간 상시 지원하는 곳으로 40명을 정원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4, 5, 6학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김동수 기자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

안동시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4일부터 3월 15일 까지 신규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안동시 소재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저렴하게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이다.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체육시설 등 다양한 업종이 신청 가능하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및 법인 △육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가격수준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등을 고려해 현지 실사평가를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소규모 환경개선, 물품 지원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홈페이지 및 반상회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 ☎054-840-5303 또는 각 업소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발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발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안동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18개소, 이·미용업 5개소, 세탁업 2개소, 기타서비스업 1개소 총 26개소가 지정돼 있다. 최준길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2025

A P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과거의 역사를
아우르고



현재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의 꿈을
실현합니다

